

3.1민주구국선언(1976. 3. 1) 관련 기록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 날에
오 참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1976년 6월 5일 법원 입구 골목에서 서서히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보라색 한복을 입은 일단의 부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시청 쪽으로 행진을 하며 불렀던 “우리 승리하리라”는 긴급조치 9호의 엄혹한 유신체제 하, 민주주의 부활을 원하는 한 목소리였다.

보라색 한복을 입은 이들은 그

해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미사에서 3.1정신을 기초로 현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 즉 3.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 관련자가족이었다. 선언문의 내용은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와 학생 석방, 집회·출판의 자유 보장, 의회 정치 회복, 사법부의 독립 등 민주주의 구현, 파탄에 이른 국민경제와 부조리, 부패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권은 퇴진할 것, 민족통일을 추구할 것 등을 담고 있었다. 이에

3월 10일 정부는 이 선언문 발표를 종교의 자유를 악용한 정치활동으로서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20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3.1민주구국선언이 국내외에 준 충격과 영향은 대단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전·현직 정치인과 종교인, 지식인들을 투옥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었다. 한편 민주세력에 있어서는 재야와 정치인, 신교와 구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연대가 도모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자는 윤보선·김대중·정일형 등 정치인, 함석헌·문익환·문동환·서남동·이해동 등 개신교 목사, 안병무·이문영·이우정 등 해직교수, 함세웅·문정현·신현봉·김승훈·장덕필·김택암·안충석 등 가톨릭 신부 포함 20명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관련자 가족들의 기동력 있는 투쟁은 눈부신 것이었다. 이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구속자가족협의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으나 3.1민주구국선언사건의 경우 규모도 컸고 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가족들은 ‘3.1사건가족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3.1민주구국선언 이후 구속 1개



월이 지나도 가족면회가 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방청권을 제한하는 등 박정권의 인권유린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이에 항의하며 재판때마다 다채로운 전략으로 박정권의 비인권적 통치를 고발하였다.

방청권을 제한하고 법원입구를 통제하는 데 항의하여 가족 전원이 검은색 비닐테이프로 입을 십자(+)모양으로 봉하고 시위를 한 다던가, 고난과 승리의 상징인 보라색 한복을 입고 손에는 '자유만세', '민주주의 만세' 등을 쓴 부채를 들고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에는 우산도 등장하였는데 흰 우산을 펼쳐들면 '민주인사 석방하라'라는 글씨가 선명히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가슴에 보라색 십자가를 부착한 원피스를 입고 침묵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가족들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결집하여 감옥에 있는 당사자 못지않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문동환 목사의 부인 문혜림 여사는 십자가 메달을 미국에서 보내왔다. 둥근 원형 안에 큰 십자가 한개와 작은 12개가 문양되어 있는 이 목걸이는 예수와 12제자를 나타낸 것이다. 가족들은 같은 문양의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어 판매하여 구속인사의 영치금을 마련하였다. 구치소에서 집견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승리를 나타내는 1만개



의 V자형 코로 구성된 보라색의 삼각형 털실 쇼울은 만들어 국내외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사건의 성격도 알리면서 판매하기도 하여 이 보라색 쇼울은 곧 3.1사건을 상징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가족들의 이러한 노력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식과 남편을 구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직접 민주화운동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본 사료관에는 3.1민주구국선언과 관련하여 문익환 목사님의 부인 박용길 장로님과 이해동 목사가 기증하신 사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족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그대로 전해주는 고난과 승리의

상징인 보라색의 십자가 원피스와 한복, 문익환 목사님 수인번호 '2020' 이 선명한 원피스, 문혜림 여사가 보내주었던 십자가 목걸이 복제본과 반지, 그리고 민주인사 석방을 염원한 부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해동 목사님은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착용하시던 여름수외와 겨울수의 그리고 가족들이 사용한 부채 등을 기증하였는데, 특히 여름수외의 손목에는 수감의 녹물이 그대로 스며져 있어 엄혹한 시절을 그대로 반증해주고 있다.

귀중한 사료를 기증해 주신 이해동 목사님, 그리고 '통일의 집' 문 앞에서 단아하게 배웅해 주시던 박용길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